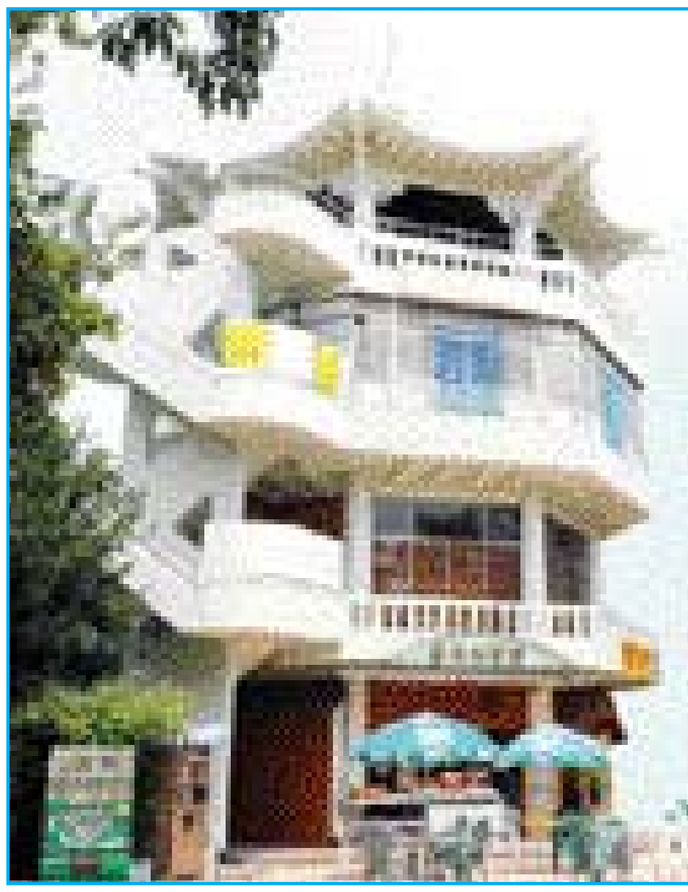


사직공원 팔각정 '예술 옷' 입힌다

디자인비엔날레 '생활 속 디자인'
2억원 들여 36년 만에 리모델링
양림동 일대 새 문화 명소로 기대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1월5일) 전시 기간 동안 국내외 디자이너들이 예산 2억원을 들여 광주시 남구 사동 사직공원 팔각정을 리모델링한다.

그동안 작품 전시에만 치우쳤던 디자인비엔날레가 지난 1973년 건립된 노후 건물인 팔각정에 새옷을 입히는 '생활 속 디자인'을 실천하는 셈이다.

특히 팔각정이 새 단장 되면 인근의 남구 양림동 이장우 가옥(광주시 지정 민속자료 1호), 최승효 고택(시 지정 민속자료 2호) 등과 더불어 광주의 새로운 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은 2일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중 하나로 사직공원 팔각정을 디자이너들이 직접 리모델링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주 광주시 등과 협의를 거쳐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3일 심의를 거쳐 디자이너를 선정한 뒤 사업 추진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총괄하는 은병수 예술총감독 등이 참여하는 심의에서는 헤드 디렉터 1명과 국내외 디자이너 2~3명으로 구성된 실무진을 추천·선정한다. 또 실무진이 꾸려지면 건물 디자인과 시공 등을 통해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전에 리모델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병수 감독과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참여 디자이너들은 지난주 팔각정 일대를 현장 실사했다.

재단은 제2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2007년10월5일)에 맞춰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독일의 디자이너 잉고 마우러의 기념 조형물 '평화의 빛'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건물을 직접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도 팔각정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면 인근의 아시아문화전당과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인 양림동 일대의 근대문화유산 등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사직공원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심 내 문화예술공원으로 만드는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 근대역사 문화의 보고(寶庫)인 이장우 가옥, 최승효 고택과 양림동 일대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재단 관계자는 "새로운 장소에 상징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낡은 도심 속 건물을 새로 디자인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직공원 팔각정은 지상 4층, 연면적 527㎡ 규모로, 4층에 전망대가 마련돼 있지만 지난 36년 동안 소규모 유지보수 작업만 이뤄져 건물이 낡고 찾는 사람도 드물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시립무용단 '돈키호테' 공연

9~10일 광주문예회관

발레 '돈키호테' 전막 공연은 지난 1990년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후 주요 레퍼토리로 정착한 작품이다.

최근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창작 발레 '명성황후'를 무대에 올렸던 광주시립무용단이 9~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돈키호테'를 다시 공연한다.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원작을 모티브로 한 '돈키호테'는 선술집의 말괄량이 딸 키트리와 가난한 이발사 바질의 사랑과 모험을 그린 발레로 모두 3막 6장으로 구성돼 있다.

화려한 의상과 스페인의 이국적인 풍경이 인상적인 '돈키호테'는 고전 발레 뿐 아니라 정열적인 스페인의 민속춤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특히 무용수들의 고난이도 테크닉이 관심을 모은다.

'돈키호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식 장면. 특히 발레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공연하는 '갈라 무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결혼식 2인무중 여주인공 키트리의 32바퀴 회전 장면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또 2막 가운데 돈키호테가 키트리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둘시네아로 착각하는 꿈 장면에서 선보이는 키트리와 숲의 여왕, 군무팀들의 몽환적인 춤사위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주인공 키트리역에는 정정은·조나경씨가 캐스팅됐으며 바질 역의 강진구·김치환, 돈키호테역의 나도준, 둘시네아 역의 조성미씨 등 50여명의 단원들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5천원.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대표주자 조지 윈스턴 공연이 1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조각가 심우상 개인전

3~15일 광주 일곡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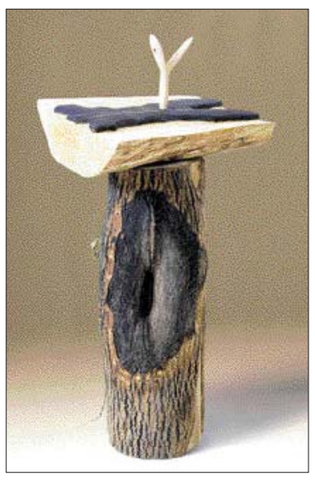
조각가 심우상씨가 3~15일까지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심씨는 '반본환원(返本還源)'을 주제로 새, 뱀, 물고기 등의 형상을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반본환원'은 불교의 '십우도(十牛圖)'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우주를 아무런 번뇌 없이 참된 경지로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곱게 깎아 낸 나무위에 철재로 만든 거미집과 거미를 설치한 '집 나간 거미',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붉은 뱀을 형상화 한 '뱀'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심씨는 제3조각가 협회전, 전남조각회전, 조각모임 일탈전 등에 참여했고 현재 한국미협, 전남조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062-510-16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반본'

극단 청춘 단원 모집

극단 청춘에서 지방 순회공연 및 소극장 공연을 함께할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배우(연극 연기), 기획, 스텝이며 20세 이상 남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극단 청춘은 창작극, 일반극, 아동극, 연극교육사업 등 다양한 연극활동을 하고 펼치고 있는 순수 연극 창작집단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http : //cafe.daum.net/cctheater 극단청춘. 문의 062-430-5257, 010-7205-0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지 윈스턴 'Summer' 광주 공연 성료

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피아노의 시인' 조지 윈스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흥겨운 재즈 리듬에 취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Summer'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 조지 윈스턴은 'December'를 비롯한 히트 앨범 수록곡과 'New Orleans shall rise again' 등 자신이 영향을 받았던 고전 재즈 스타일의 곡 등 다양한 느낌의 곡을 들려줬다.

특히 조지 윈스턴은 이날 공연에서 피아노 연주 뿐 아니라 1860년대 하와이 전통 기타 스타일인 하와이안 슬랙 키 기타연주와 하모니카 연주도 들려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공연 중 가장 많은 환호를 받은 곡은 음반 'December' 수록곡인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이었으며 국내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 'Urban Lullaby' 등 신곡은 조지 윈스턴 특유의 감성적인 멜로디로 깊은 울림을 줬다.

조지 윈스턴은 앙코르로 다시 한번 기타 연주를 들려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